

주간 전남 농업

VOL. 239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6월 넷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여름철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관리 요령
정책동향 및 홍보 농촌진흥청, '시장 맞춤형 콩' 기술이전 나선다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담양군,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상품포장 교육
해외 농업정보 브라질 농림축산식품부, 광우병 발견하여 對중국 수출 일시 중단



전남산 조생복숭아 홍콩 첫 수출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9 ~ 21도, 최고기온 : 25 ~ 28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7~15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배추 생산전망 및 출하전망
- ▶ 무 생산전망 및 출하전망
- ▶ 당근 생산전망 및 출하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4

- ▶ 전남산 조생복숭아 홍콩 첫 수출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6

- ▶ “이상기상 대비, 인삼밭 배수로·시설물 점검하세요”
- ▶ 강원도 고랭지 감자역병 예보! 즉시 방제해야
- ▶ 여름철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관리 요령
- ▶ 사료용 옥수수, 두 번 재배로 생산량도 꺾춤
- ▶ 유지작물서 기능성 불포화지방산 생산한다
- ▶ “고년근 인삼과 새싹 삼, 쓰임새와 성분이 달라요”
- ▶ 가축분뇨 퇴액비 장마 전 살포하세요
- ▶ 남도-도청노조, 양파마늘 사주기 운동
- ▶ 전남도-농협, 범도민 양파 소비촉진 나서
- ▶ 전남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으로 매출 증대

6.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9

- ▶ 농촌진흥청, ‘시장 맞춤형 콩’ 기술이전 나선다
- ▶ 열대거세미나방, 제주 동부 옥수수 재배 포장 4곳서 발견
- ▶ 농식품부, 수출 촉진을 통해 양파시장 안정 도모
- ▶ 전남농기원, 차 추출물 이용 기능성 생활제품 MOU 체결
- ▶ 전남농기원, 차나무 신품종 “향녹” 육성
- ▶ 전남농기원, 과수화상병 철벽 방어에 온힘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5

- ▶ 담양군,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상품포장 교육
- ▶ 담양군, 안전한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만든다
- ▶ 보성군, 자매결연 지자체 보성감자 8톤 공급
- ▶ 보성군, 우리 쌀에 가치를 더하다
- ▶ 화순군, 고품질 복숭아 본격 수확 시작
- ▶ 해남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3개월내 완료하세요
- ▶ 해남군,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속속 시행
- ▶ 무안군, 생장점 마늘 종구 농가 보급 나선다
- ▶ 함평군, 농민회 통일벼 모내기 행사 개최
- ▶ 장성군, “베리(berry)류 드시고 젊어지세요”

8. 해외 농업정보 45

- ▶ 브라질 농림축산식품부, 광우병 발견하여 對중국 수출 일시 중단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6. 24. 시카고 선물거래소)

9. 농식품 빅데이터(수출입)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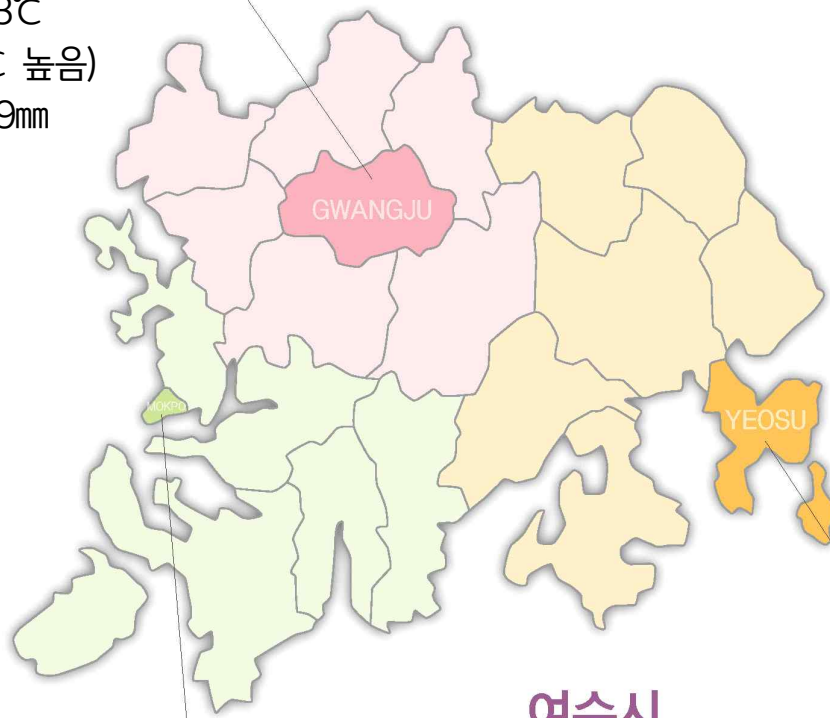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1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4.3℃
(평년대비 1.1℃ 높음)
- 최고기온 : 28.3℃
(평년대비 0.9℃ 높음)
- 최저기온 : 20.3℃
(평년대비 0.2℃ 높음)
- 강 수 량 : 10.9mm



목포시

- 평균기온 : 23.0℃
(평년대비 0.6℃ 높음)
- 최고기온 : 25.9℃
(평년대비 0.1℃ 낮음)
- 최저기온 : 20.1℃
(평년대비 0.4℃ 높음)
- 강 수 량 : 10.5mm

여주시

- 평균기온 : 22.9℃
(평년대비 1.2℃ 높음)
- 최고기온 : 25.3℃
(평년대비 0.9℃ 높음)
- 최저기온 : 20.6℃
(평년대비 0.9℃ 높음)
- 강 수 량 : 12.6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6월 배추·무 출하량 평년과 비슷할 전망



배추·무 출하량 비슷



배추·무 가격 평년 수준



평년



2019년



평년



2019년



기상
예보



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음



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



고온 가뭄 발생 시
가격 변동 가능



고랭지작형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추 생산전망 및 출하전망

📍 생산전망 : 노지봄배추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 2019년 노지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4%감소하였으나, 평년보다는 8% 증가한 2,400ha로 추정된다.
- 노지봄배추 작황이 부진한 것은 생육기(4~5월) 고온, 가뭄 등 기상 악화로 생리장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노지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19% 가소하나, 평년보다는 6% 많은 19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노지봄배추 출하는 낮은 가격과 생육 초기(4월) 저온영향으로 평년보다 5일 내외 지연되어 6월 상순부터 본격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하전망 : 6월 출하량 전년보다 감소, 7월은 증가 전망

- 6월 노지 봄배추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12% 적겠으며, 준고랭지1기작 배추 출하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6월 전체 배추 출하량은 노지봄 및 준고랭지1기작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11%적겠으며 평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 7월 배추 전체 출하량은 고랭지배추 출하량이 증가하고, 노지봄배추 저장 출하량도 많아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5%,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 생산전망 및 출하전망

📍 생산전망 : 봄무 생산량 전년과 평년보다 감소 전망

- 2019년 시설봄무 생산량은 평년보다 2% 적은 1만 6천 톤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단수가 평년 대비 8% 증가하였으나, 재배면적이 10%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2019년 노지봄무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5%, 13% 감소한 870ha로 추정된다.
- 노지봄무 작황은 평년보다 부진한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 이는 파종기(93월) 강수량이 적었고, 생육기 (4월~5월) 큰 일교차 , 고온, 가뭄 등으로 결주 및 추대 발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노지봄무 생산량은 8만 8천 톤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3%,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지봄무 출하는 잦은 기상변화의 영향으로 생육이 지연되면서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6월 중순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

📍 출하전망 : 6월 출하량 평년과 비슷, 7월 감소 전망

- 6월 출하량은 본격 출하되는 봄무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월동무 저장 출하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6% 많으나, 평년과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출하량은 노지봄무가 감소하나, 준고랭지1기작 무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2% 많으나, 평년보다는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근 생산전망 및 출하전망

📍 생산전망 : 봄당근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2019년 봄당근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 6% 증가한 913ha로 추정된다.
- 시설봄당근 작황은 5월 중·하순 이른 폭염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반면, 노지봄당근의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봄당근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1%, 2% 많은 2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출하전망 : 6~7월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6월 시설 및 노지봄당근 출하량은 전년보다 각각 9%, 14%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출하량은 전년보다 9% 많겠으나, 평년보다는 1%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전체 출하량은 봄당근 산지 및 저장 출하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12% 많겠으나, 평년보다는 1%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06. 24. 기준 / 단위: 원)

식량작물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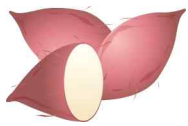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20kg	48,980	48,980	↑ 9.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180	44,720	39,533	↑ 23.9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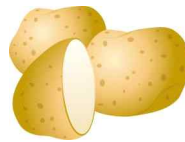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35kg	198,200	197,200	↑ 9.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6,200	181,600	154,517	↑ 28.3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0kg	35,400	37,800	↓ 18.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760	43,550	33,173	↑ 6.7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20kg	22,400	22,300	↓ 15.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240	26,500	25,000	↓ 10.4

채소류

배추(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0kg	6,000	6,100	↓ 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84	6,150	5,967	↑ 0.6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8kg	6,000	5,300	↑ 2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480	4,950	5,370	↑ 11.7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00개	26,333	33,667	↓ 19.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333	32,667	29,965	↓ 12.1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20개	13,600	15,000	↑ 17.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740	11,575	11,907	↑ 14.2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30kg	563,600	568,600	↓ 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73,600	600,000	365,042	↑ 54.4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0kg	37,600	42,600	↑ 1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840	33,500	36,500	↑ 3.0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20kg	95,000	100,000	↓ 34.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1,000	145,000	145,000	↓ 34.5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20kg	8,700	8,400	↓ 35.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00	13,575	15,582	↓ 44.2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20kg	32,600	33,600	↓ 15.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880	38,700	31,667	↑ 2.9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kg	1,500	1,540	↑ 1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58	1,340	1,499	↑ 0.1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5kg	17,000	18,300	↑ 7.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960	15,750	14,963	↑ 13.6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개	16,000	14,300	↓ 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040	16,500	14,480	↑ 10.5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0kg	18,200	17,000	↓ 1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440	21,100	16,180	↑ 12.5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5kg	15,100	15,800	↑ 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480	13,900	12,860	↑ 17.4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0kg	43,600	45,000	↑ 1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080	39,400	41,183	↑ 5.9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5kg	60,600	59,200	↑ 65.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400	36,600	45,840	↑ 32.2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0kg	41,600	41,800	↓ 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480	42,150	43,797	↓ 5.0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00g	8,041	8,308	↑ 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006	7,854	7,309	↑ 10.0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kg	5,024	5,135	↑ 6.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94	4,723	5,525	↓ 9.1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30kg	498,600	498,600	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9,200	498,600	526,333	↓ 5.3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2kg	12,200	11,400	↓ 10.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080	13,700	14,547	↓ 16.1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2kg	6,600	6,600	↓ 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000	6,950	7,897	↓ 16.4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00g	1,973	1,976	↓ 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09	2,082	2,243	↓ 12.0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30개	5,074	5,028	↑ 2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46	4,019	5,784	↓ 12.3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24)	1주일전 (6/17)	전년대비	
1L	2,616	2,616	↑	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7	2,525	2,542	↑	2.9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6. 24.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569	5,606	5,608	↓ 0.7	↓ 0.7
거세	6,868	6,856	7,063	↑ 0.2	↓ 2.8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379	3,321	3,251	↑ 1.7	↑ 3.9
수	4,230	4,223	4,128	↑ 0.2	↑ 2.5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168	3,149	3,34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6	↓ 5.4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51	435	27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7	↑ 62.2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88	391	45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8	↓ 13.8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020	1,080	94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6	↑ 8.3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07	826	59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9.8	↑ 52.2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1,86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7.7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전남산 조생복숭아 홍콩 첫 수출

- 타지역 보다 10일 이상 빨리 출하 -

- 따뜻하고 햇살 좋은 고흥산 조생복숭아를 홍콩시장에 첫 수출했다고 19일 밝혔다.
- 김창형 강소농가(고흥군 과역면)는 10여년 전 귀농하여 강소농 민간전문가의 재배, 경영, 품질향상, 적정규모 확보 등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 품질 좋은 수출규격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 이번에 수출한 복숭아 품종은 조생종으로 그린 황도와 미홍이다. 미홍의 특성은 2005년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되었고 육질이 연하고 과즙이 많은 백육계 극조생종으로 최근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 고흥지방은 기후가 온난하고 일조량이 많아 내륙지방보다 10일 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출시장에 선보인 것이다.
- 김창형 농가는 2015년 강소농으로 선정된 이후 농촌진흥청 과수분야 정영일 민간전문가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과수 담당자의 주요 시기별 컨설팅을 실천하여 그린 황도, 미홍, 몽무사, 경봉, 장택백봉 등 숙기가

다른 10여개 품종 1.2ha(3,600평)를 재배하고 있다.

- 이번에 수출한 복숭아는 450kg으로 홍콩 대형 유통매장 등에 전시·판매될 계획이며, 시장의 수요 반응에 따라 물량과 횟수가 결정될 예정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정찬수 농촌지원과장은 “전남지역의 풍부한 햇볕과 기후 및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되어 우수한 품질을 평가받는 계기가 되고 국내 시장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이상기상 대비, 인삼밭 배수로·시설물 점검하세요”

- 바람 잦은 곳은 버팀목 · 방풍막 설치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이상기상 등으로 인한 인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과 재배 관리 요령을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 여름철 큰비는 인삼밭 습해(수분으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심한 경우 밭이 잠기거나 떠내려가는 피해를 준다.
- 이때 점무늬병, 탄저병 등이 발생하면 인삼 잎과 지상부는 시들고, 잔뿌리는 떨어지게 된다.
- 또, 밭이 침수되면 식물체 잎 표면에 찌꺼기와 오물이 쌓이면서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고, 인삼 조직은 데쳐진 것처럼 물러진다. 뿌리 부분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 전체가 썩게 된다.
- 농가에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중간 통로와 두둑을 높게 설치하는 등 관리 요령을 지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피해가 잦은 지역에서는 해가림 시설을 전후주 연결식(두둑별 앞뒤 지주대 연결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해가림 자재는 팽팽하게 설치해 비가 새는 것을 막는다. 구간마다 버팀목을 설치하고, 바람이 잦은 지역에서는 방풍망을 설치한다.

- 병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장마 전에 약제 방제를 해야 하는데, 장마기에 친환경제재인 보르도액을 사용하면 약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피해를 본 인삼밭은 시설물을 빠르게 복구해 인삼이 강한 빛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잎에 묻은 찌꺼기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며, 등록된 약제로 병해를 방제한다.
- 오랜 기간 물에 잠겨 뿌리 썩을 것으로 우려되는 4~6년생 인삼은 일찍 수확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동윤 인삼과장은 "인삼은 지대가 낮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재배를 피해야 하며, 해가림 시설은 반드시 표준 규격자재를 사용해 설치해야 한다."라며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관리 요령을 익혀 철저히 대비하자."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강원도 고랭지 감자역병 예보! 즉시 방제해야

- 6월23일~29일 사이 발생 예상...예방과 초기 방제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강원도 고랭지 감자 재배지에 6월 23일경 감자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해당 지역 농가와 씨감자 생산기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예찰 프로그램 활용 결과, 강원도 고랭지 감자 재배지에 6월 23일~29일 사이 감자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16일자로 역병 발생을 예보했다.
- 감자역병(*Phytophthora infestans*)은 서늘한 온도(10~24℃)와 상대습도 80% 이상의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한다.
- 예보가 발령된 지금, 겨울을 난 역병균들이 감자로 옮겨가는 시기로, 발생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보호용 살균제를 뿌려 역병 발생을 미리 막고, 역병이 발생하면 치료용 살균제를 뿌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역병은 저온다습할 때 잘 발생하며 고온건조한 상태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상변화에 따라 약제 살포 여부를 조절해야 한다.
- 감자역병은 병의 진행과 전염속도가 빠르고 심하면 식물을 죽게 하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방제하지 않으면 재배지 전체에 퍼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역병에 감염되면 잎은 부분적으로 갈색으로 변하고 가장자리에 흰색 실모양의 균사(균류의 영양체로 곰팡이실이라고도 부름)가 생긴다. 줄기는 갈색으로 변하며 약해져서 바람이 불면 쉽게 부러져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출처 : 농촌진흥청

여름철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관리 요령

- 퇴비사 빗물 막고 폭염엔 액비저장조 40℃ 이하 유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집중 호우와 폭염이 잦은 여름철 가축분뇨 처리 시설 관리 요령을 제시하고 관리를 당부했다.
- 여름철 집중 호우는 가축 분뇨 처리와 시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빗물이 시설 안으로 들어치지 않도록 배수 관리를 한다.
- 퇴비사는 물이 흘러나가는 길을 만들어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손된 지붕과 벽을 정비한다.
- 농가내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가 축분뇨를 액상비료로 만드는 액비저장조는 벽과 지붕의 구조를 자주 확인한다.
- 많은 비로 분뇨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관련법(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모래 포대 등으로 시설 입구의 턱을 높여 둔다. 시설 주변 축대에서 흙이 섞인 물이 나오거나 기울고 금이 갔다면 즉시 보수한다.
- 무더위에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내 기계와 전기 장비 과열, 퇴비사 냄새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분뇨 처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온도가 오르지 않도록 살피야 한다.
- 퇴비사는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직사광선을 막는다. 고온기에는 냄새가 쉽게 확산하므로 저감 장치를 미리 점검해둔다.
- 액비 미생물은 40℃를 넘으면 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늘막을 설치하고 자주 환기해 온도를 낮춘다. 액비저장조 바닥 청소 시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히 환기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사료용 옥수수, 두 번 재배로 생산량도 꺾춤

- 국내 육성 품종 2기작으로 연간 조사료 생산량 1.7배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년에 2차례 수확해 자급 조사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사료용 옥수수 2기작 재배 기술을 소개했다.
- 사료용 옥수수 재배 면적은 전국 1만 3000ha(2018)다. 가축이 잘 먹고 알곡에 영양도 풍부해 축산 농가의 선호도가 높다.
- 그러나 1년에 한 번만 생산하는 양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2기작 재배 기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사료용 옥수수를 두 번 재배하려면 전기작은 4월에 심어 7월 하순에 수확, 후기작은 7월 하순에 심어 10월 하순에 수확한다.
- 후기작 생산량은 전기작의 70% 정도로, 10a당 15톤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연간 조사료 생산량이 1.7배 늘어난다.
- 2기작 재배에는 숙기가 빠른 조생종이 유리하며 국내 육성 품종으로는 '신황옥', '신황옥2호' 등이 있다.
- '신황옥'은 말린 수량이 1헥타르(ha)당 약 19톤이며, 재배 안정성이 높아 후기작에 심어도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강원 횡성, 충남 보령과 서천, 전남 강진 등의 농가 포장에 '신황옥', '신황옥2호' 품종을 심어 2기작 시범 재배할 예정이다.
- 후기작 수확기인 10월에는 축산농가와 함께 국산 품종의 생육 특성 및 수량성을 비교 검토한 뒤, 종묘 회사를 통해 품종을 보급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유지작물서 기능성 불포화지방산 생산한다

- 농촌진흥청, 감마리놀렌산 · 스테아리돈산 생합성 유전자 발견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기능성 불포화지방산인 '감마리놀렌산'과 '스테아리돈산'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발견하고, 유지작물에서 이 지방산을 얻을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 감마리놀렌산은 달맞이종자유에 많으며 피부 질환 개선 효과가 있다. 스테아리돈산은 항산화기능성이 인정된 DHA(docosahexaenoic acid)로 쉽게 전환되는 특성이 있다.
- 먼저, 난균류의 한 종에서 감마리놀렌산과 스테아리돈산을 생합성하는 델타6 불포화효소 유전자를 찾아 효모로 그 기능을 확인했다.
- 이 유전자의 기능 확인을 위해 실제 유지작물(들깨)에 도입했더니 기존 품종에 없던 감마리놀렌산과 스테아리돈산이 각각 25%, 20%씩 만들어져 전체 지방산의 45%를 차지했다.
- 국내 자생식물을 이용한 이 기술은 기능성 산업·의약품 소재 등의 국산화와 스마트팜과 연계한 미래 농업의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 연구 결과는 2014년 특허1)등록됐으며, 지난 4월 식물학 분야에서 저명한 BMC Plant Biology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여윤수 생물소재공학과장은 "이번 연구가 DHA 같은 기능성 지방산 대량 생산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기술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고년근 인삼과 새싹 삼, 쓰임새와 성분이 달라요”

- 고년근은 깊은 맛, 새싹 삼은 가볍게 즐기기 좋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고년근 인삼과 새싹 삼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과 구매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소개했다.



▲ 새싹 삼

▲ 고년근 인삼

- 고년근 인삼과 새싹 삼 모두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식물로 같은 종이지만, 재배법이 달라 쓰임새나 성분에 차이가 있다.
- 재배 방법= 고년근 인삼은 흙에서 4~6년간 재배한 것으로 주로 뿌리를 이용한다. 이와 달리, 새싹 삼은 1년생 묘삼을 3~4주간 싹을 틔운 것으로 잎부터 줄기, 뿌리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다.
- 쓰임새= 고년근 인삼은 뿌리를 한약재로 이용하며, 보통 찌고 말려 홍삼과 같은 건강 기능성 식품 등으로 활용한다. 뛰어난 효능 덕분에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고, 닭백숙 등 보양식이나 전골 등 깊은 맛을 내는 데 잘 어울린다. 반면, 새싹 삼은 나물처럼 식감이 부드러워 샐러드, 비빔밥, 주스 등 가볍게 즐기기 좋다. 채소처럼 잎이 쉽게 시들므로 유통기간은 1~2주로 짧다.

- 성분= 고년근 인삼 한 뿌리에는 항암, 항산화, 콜레스테롤 저하효과가 있는 생리활성물질인 사포닌이 100~200mg가량 들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최근에는 뼈 건강 개선 효과까지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았다. 새싹 삼은 한 뿌리에 사포닌이 1~4mg 들어있다. 단, 잎과 줄기에는 뿌리보다 사포닌이 2~3배 많은 8~12mg가량 들어 있다. 약재용이 아니기에 사포닌 외에 달리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없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현동운 과장은 "시중에 '새싹 삼이 고년근 인삼보다 항암 효과가 더 좋다'거나 '새싹 삼 한 뿌리면 6년근 인삼 다섯 뿌리를 먹는 효과가 있다'는 비교 정보는 자칫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라며, "고년근 인삼은 우리나라 전통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효능적 가치가 높고 새싹 삼은 인삼의 향과 맛, 그리고 유효성분을 기대할 수 있는 약용채소의 대표 주자이므로 각각 올바른 정보와 함께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퇴액비 장마 전 살포하세요

- 전남도, 농경지 오염 방지위해 6월 말까지 완전 부숙해 살포 당부 -

- 전라남도는 여름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퇴·액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늦어도 6월 말까지 완전 부숙된 퇴·액비를 살포하고 시군과 자원화조직체에서는 조사료 경영체와 협의해 사전 살포농지 등을 확보해 살포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이는 모내기 등 농사철에 집중 살포해 영농에 도움을 주고, 장마철 대비 충분한 액비 저장 공간을 확보해 여름철 집중강우 시 가축분뇨 퇴비·액비가 빗물 등에 섞여 축사 주변 및 농경지 등에 흘러넘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가축분뇨 퇴·액비는 반드시 부숙이 완료된 것만 살포해야 한다. 또한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하천, 농수로 등 살포농지 밖으로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경사가 45도 이상 되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신고되지 않은 지역에 살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액비는 완전 부숙 완료된 액비만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농지 이외의 지역에는 살포가 금지된다. 특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도청노조, 양파마늘 사주기 운동

- 서울시청광주시청 등 43개 기관 대상...혈액순환 개선향암 등 효과 -

- 전라남도가 서울시청 등 기관단체와 손잡고 시름에 잠긴 양파마늘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 전라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서울시청, 광주시청, 시군,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나주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양파마늘 사주기 운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라남도와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승규)은 2천여 조합원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에서 ‘사랑의 양파마늘 사주기 운동’에 동참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올해 전남 양파마늘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적다. 하지만 생육 환경이 좋아 생산량이 급증해 가격이 내렸다. 6월 7일 가락시장의 양파 도매가격은 1kg당 42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4%가량 내렸다. 깐마늘 도매가격은 1kg당 5천433원으로 지난해보다 19% 가량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 전라남도는 각급 기관단체와 역할을 분담하고 자체적으로 수급 안정과 판촉행사를 추진한다. 양파마늘 직거래 장터 운영, 양파와 양파즙의 온라인 특별 이벤트 행사 추진, 양파 가공업체 매입량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 농협중앙회전남본부는 은행 우수 고객에게 사은품 활용, 농협 및 남해화학 등 계열사와 서울과 광주 등 도시 농협에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지회는 국내산 햅양파, 양파절임 김치 등의 식단 제공을 유도하고 이를 홍보한다.
- 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영양사회는 학교, 연수원, 기업체 등 구내식당에 양파 이용 식단을 제공토록 유도한다.
- 서은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양파마늘 소비 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운영, 온라인 판매 활성화, 공공기관의 양파 1망 사주기 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과잉생산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자체와 생산자, 농협이 상호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은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양파마늘 소비 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운영, 온라인 판매 활성화, 공공기관의 양파 1망 사주기 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과잉생산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자체와 생산자, 농협이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농협, 범도민 양파 소비촉진 나서

- 19일 도청서 양파김치 담그기 양파즙 시식회 등 캠페인 -

- 전라남도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양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 농가를 위해 범도민 양파 소비 촉진 본격화에 나섰다.
- 전라남도는 19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무안 양파를 주제로 양파김치 담그기와 시식회 행사를 추진했다. 밑반찬으로 생양파, 양파김치, 양파볶음, 양파 장아찌를 식단으로 제공했다.
- 전라남도는 도청 남악쉼터에 양파 판매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매주 금요일 무안 일로 로컬푸드와 연계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판장을 개설한다.
-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 상생상회, 21일부터 27일까지 롯데백화점 부산 서면점에서 양파 판로 확대 직거래장터를 연다.
-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www.jnmall.kr)에서도 양파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생양파와 양파즙, 양파 김치에 대한 다양한 특가 기획전을 연다. 소비자 가격은 양파 5kg당 5천900원, 무안 양파즙 100포에 2만 2천500원이며, 배송비는 무료다.
- 전라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서울시청, 광주시청,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단체와 손잡고 양파마늘 사주기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으로 매출 증대

- 나주 팥죽(주) 쌀눈식혜 등 271개 제품 추가 선정 -

- 전라남도는 20일 2019년 상반기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선정을 위한 ‘전라남도 통합상표 심의위원회’를 열어 91개 업체, 271개 제품을 선정했다.
- 선정 제품은 전남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이다.
- 전라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신청을 받아 농수산 분야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해 서류 검토를 하고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심사를 실시했다. 이어 ‘전라남도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전남지역 생산 주원료 사용 여부, 식품 안전성, 유통 능력, 생산 기술 수준, 자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 주요 선정 제품은 나주 팥죽(주) 쌀눈식혜, 여수 농업회사법인 식객갯김치(주)의 갯김치, 고들빼기김치, 배추김치와 나주시 (주)창억의 부드럽고 쫄깃한 호박인절미, 입 안 가득 고소한 녹두깨찰떡 등이다.
-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도지사품질인증 통합상표를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은 310개 업체, 1천193개 품목에 달한다. 백화점 입점, 홈쇼핑 진입, 해외 수출 등으로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는 등 상품 인지도와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촌진흥청, '시장 맞춤형 콩' 기술이전 나선다

- 21일 대전서 고기능 콩 품종 설명회... 기술이전 상담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고기능 콩 4품종에 대한 품종설명회를 21일 대전 대덕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가졌다.
- 기존의 콩 시장은 공급자 기준의 원가 절감에 중점을 뒀던 전체 콩 사용량 중 국산 비중이 14% 정도로 낮았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기능성, 가공 특성이 검증된 프리미엄급 품종이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국내 콩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번에 선보이는 고기능 콩은 간 보호, 피부노화와 염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쥐눈이콩, 단백질 함량이 일반 콩보다 10% 이상 높은 고단백 장류콩, 어린이가 먹기 좋은 고품질 소립 검정콩, 일반 콩처럼 수확하는 고품질 검정콩 등 4종이다.
- 농촌진흥청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 문중경 단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선보인 품종은 유전체 해독의 기초연구 기반으로 구축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체 육종 기술을 적용해 5년 만에 개발한 첫 성과물이다."라며, "실용화 가능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우리나라 농생명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열대거세미나방, 제주 동부 옥수수 재배 포장 4곳서 발견

- 농촌진흥청, 국내 첫 유입 확인...신속 방제로 피해 최소화 추진 중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제주 동부 구좌읍과 조천읍에 위치한 옥수수 재배 포장 4곳(구좌읍 3곳, 조천읍 1곳)에서 채취한 나방 애벌레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열대거세미나방의 국내 첫 발생을 확인했다
- 해당 지역의 옥수수는 이미 수확기에 접어들었으나, 일부 늦게 심은 어린 옥수수에서만 애벌레가 발견되었고, 새로 난 잎 속에서 1~3령의 애벌레가 발견되었으며 잎 부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해당지역 농촌진흥기관의 방제지도를 통해 등록된 적용약제로 방제작업을 마쳤으며,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을 진행 중이다.
- 이번에 확인된 열대거세미나방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옥수수 비래해충 예찰과정(13일)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 농촌진흥청은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 기주작물 재배지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제주 지역 주요 옥수수 재배지를 중심으로 육안조사와 트랩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열대거세미나방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자료 배포와 휴대전화 문자발송 등을 통해 예방과 방제에 나선다.
- 또한 이번에 발생이 확인된 곳은 방제 지도와 적극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수출 촉진을 통해 양파시장 안정 도모

- 수출물류비 확대, 해외 판촉 등 긴급 수출지원 활동 전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양파 주산지 지자체,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확대를 통해 양파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는 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양파 수출시 물류비를 추가지원하고, 수출 양파의 안정적 수출 물량 및 시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출전문생산단지 지정을 유도하고, 수출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업계에서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업체 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국가별/품위별 수출최저가격(Check-price)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물류비 추가지원 등으로 확보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공략시 금년도에는 2만 톤 이상(‘18년 3,400톤)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양파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업계 및 생산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확대를 통한 양파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농기원, 차 추출물 이용 기능성 생활제품 MOU 체결

- 녹차 추출물 이용 손세정제 등 다각화 제품 상품화 추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유기농 전문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에코먼트와 차 추출물 이용 확대를 위해 유기농 차 추출물을 이용한 손세정제 등 기능성 생활제품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가 차의 유용성분인 카테킨류의 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충치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활용하여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등 기능성 생활제품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온 제조기술의 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협약 체결을 통해 전남 유기농 재배 차를 원료로 추출물을 활용하고 연구개발한 손세정제 제조기술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밖에도 이번 협약은 차 추출물을 활용한 여성청결제, 입욕제, 여드름이나 아토피 피부관리제 등 미용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다짐의 자리가 되었다.
- 여성 기업가인 (주)에코먼트 신정은 대표는 “K-뷰티 열풍으로 국내 유기농 천연원료를 활용하여 기능성 미용제품 시장이 커질 전망이며, 개발된 손세정제뿐만 아니라 향후 여드름 관리제품, 아토피피부관리제 등을 상품화할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차나무 신품종 “향녹” 육성

- 증식 후 2020년부터 농가 보급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동해에 강하고 수량성이 많은 차나무 신품종 향녹을 육성하여 2020년부터 농가에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 지구 온난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상기온으로 반복되는 동해로 어린 차나무 고사와 늦서리로 인해 수확시기가 지연되고 수량이 감소하는 등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 이에 전남농기원에서는 이상기온에 대비하여 동해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향녹 품종을 개발하게 되었다.
- 이 품종은 1997년 보성지역 야산에서 수집하여 그동안 계통분리와 특성검정, 지역적응성 검토를 마친 후 지난 4월 품종 심의를 거쳐 품종보호출원 하였다.
- 특히, 추위와 병충해에 강하면서 수량도 많고 카데킨, 총아미노산, 비타민C 성분이 많아 녹차용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차산업연구소는 참녹, 상녹 등 14품종을 개발하여 전남지역 등에 12ha를 보급해 왔으며 품종갱신이나 신규 다원조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확대증식 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기광연 연구사는 “이외에도 관상적 가치가 높은 황금색, 자주색 등 다양한 색상의 품종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시켜 농가 소득향상에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과수화상병 철벽 방어에 온힘

- 신속 간이검사 식물화상병 119 가방 도내 19개 시군에 지원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과수화상병 예방과 현장 신속대응을 위해 도내 배·사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19개 시군에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일명 ‘식물화상병 119 가방’을 꾸려 배부하였다.
- 과수화상병은 2015년 첫 발견된 이후 2018년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4개 도, 6개 시군으로 확대 발생하였고, 올해는 1월에 경기 안성 3곳을 시작으로 5월에 충남 천안 5곳, 최근 충북 충주, 제천에서 추가 발생하여 6월 7일 기준으로 4지역 19농가 10.1ha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의심신고도 잇따라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충북 음성 사과 과수원에서도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발생범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 과수화상병 유사·의심증상을 보이는 과원 현장에서 진단키트를 활용한 간이검사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식물화상병 119 가방’을 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시군에 직접 전달하고 활용 방법을 교육하였다.
- ‘식물화상병 119 가방’은 과수화상병 진단키트를 포함한 예찰 및 간이검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도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해 현장에서 겪었던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한 검사와 오염 최소화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간이 진단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과수화상병 방제 도우미’라 할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담양군,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상품포장 교육

- 정성껏 키운 우리 농산물을 더욱 돋보이게 -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경쟁력 있는 가공품 생산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딸기가공연구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상품포장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6월 한 달간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담양군 주요농산물인 딸기를 이용, 관련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포장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상품들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 딸기가공연구회 장효순 회장은 “정성스럽게 재배한 딸기를 예쁘게 포장해 지인에게는 감동 가득한 선물을 선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을 듯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우리지역 농산품이 어디서든 돋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출처 : 담양군



담양군, 안전한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만든다

-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시범사업, PLS 교육 ·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추진 -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안전한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만든다’를 기치로 농업인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담양군은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은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사고예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조선대학교 작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를 컨설턴트로 선정해 지난 4일과 18일 2차례 위험요소를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파악하는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 또한 관내 2,0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재해, 농업인 미세먼지 대처 요령,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PL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작업 안전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다.
- 이병창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추진 중인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조성과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담양군



보성군, 자매결연 지자체 보성감자 8톤 공급

- 농가소득창출 위해 6개 지자체, 8톤의 수미감자 직송 -

- 보성군은 18일부터 자매결연 지자체에 보성 특산품인 보성감자를 공급하여 상생과 협력 등 교류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감자는 청정지역인 회천면에서 재배한 수미품종으로 서울시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와 인천시 동구, 대구시 북구 및 광주시 동구 등 총 6개 지자체에 8톤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 특히, 해당 지자체에 공급하는 감자는 재배지역에서 바로 수확한 우수한 제품만을 엄선하여 군에서 직접 운송함으로써 품질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 자매결연 지자체인 서울시 강북구청 대외협력팀장은 “2009년부터 매년 직송하는 보성 회천감자를 먹고 있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면서 재구매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 한편, 군은 자매결연 지자체의 공무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감자를 비롯한 농·특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지역 농가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지자체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출처 : 보성군



보성군, 우리 쌀에 가치를 더하다

- 보성군, 우리 쌀 디저트 교육 추진 -

- 보성군은 관내 농업인과 디저트 관련 예비 창업자 30여명을 대상으로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우리 쌀 디저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쌀뿐만 아니라 딸기, 키위, 감자, 녹차 등 보성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퓨전 떡 만들기 실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 보성군은 ‘쌀 디저트 교육’을 통해 지역 생산 농산물의 다각적인 활용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더불어 쌀 디저트라는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근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61.8kg으로 급감하고 있지만,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간식이나 식사대용의 쌀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쌀떡, 카스텔라, 케이크, 샌드위치 등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춰 간편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서 디저트와 차가 함께 있는 다담상 세팅을 해보면서 우리 농특산물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배워 앞으로 카페 창업메뉴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 있는 맛 자원이 되어 상품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보성군에서는 2018년 7,754ha 벼를 재배하여 쌀 40,243톤을 생산하였고, 2019년에는 7,438ha로 재배하고 있다.

*출처 : 보성군



화순군, 고품질 복숭아 본격 수확 시작

- 정만조생 올해 소비자에 첫선...9월까지 다양한 품종 생산 -

- 지난 16일부터 화순군(군수 구충곤)의 특산물인 고품질 명품 복숭아 출하가 시작됐다.
- 출하가 시작된 복숭아는 ‘정만조생’ 품종으로 크기는 작지만, 수확 시기가 빠르고 착색이 좋아 농가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25일부터는 미황 품종도 수확한다.
- 올해는 개화 시기가 작년보다 1~2일 늦어져 수확 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기상 조건이 양호해 작황이 좋고, 맛도 좋다.
- 화순 지역 복숭아 재배 농가는 안전하고 맛 좋은 친환경 고품질의 복숭아 생산을 위해 작물보호제 사용 횟수를 최소화하고 신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이었다.
- 화순군 복숭아 재배 면적은 230ha로 전남 지자체 중 가장 넓다. 대표적인 생산 품종은 7월 말에 수확하는 경봉 등이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명품 복숭아 생산을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국내 육성 품종 보급과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 화순군



해남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3개월내 완료하세요

- 9월 27일 이행기간 만료, 적기 적법화 당부 -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오는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해남군은 대상농가에 대한 기간 내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
- 대상 농가는 지난해 3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로 중앙부처는 향후 기간 추가연장이 없음을 확정한 상황이므로 적기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 적법화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측량을 실시해 본인의 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인소유 토지에 위치한 경우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 이후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사용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이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구비해 축산업 허가(등록)를 완료하면 적법화 이행이 완료된다.
- 이 과정 중에서 축사 등 시설이 침범한 토지매입, 축사철거, 퇴비사 설치,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인허가 등 관련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출처 : 해남군



해남군,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속속 시행

- 화산 관동지구 131ha 7월 착공, 황산관춘·기성 기본조사 착수 -

- 해남군이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속속 시행한다.
- 해남군은 화산 관동들녘에 국비 95억 원을 투입해 배수장 1개소, 배수로 2조 1.6km를 신설하고, 18.5ha를 매립하는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최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올해 7월 공사에 착공, 오는 2021년말 준공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서도 황산 관춘들녘과 기성들녘에 국비 88억 원을 들여 103ha 면적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조사에 착수한다.
- 군 관계자는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남군



무안군, 생장점 마늘 종구 농가 보급 나선다

- 무안군(군수 김산)이 마늘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수량 증대를 위해 마늘 종구 농가 보급에 나선다.
- 군은 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무안농업협동조합(조합장 : 노은준)과 생장점종구 채종농가를 육성하여 바이러스에 이병되지 않은 생장점 마늘 종구 130여 톤을 생산해 관내 재배농가에 종구용으로 보급하기로 하였다.
- 생장점 마늘은 바이러스가 적어 생육이 왕성하고 잎마름병에 비교적 강해 수확량이 많은 경향이 있다.
- 또, 군은 무안농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채종농가를 중심으로 종구용 마늘을 생산하여 2025년까지 관내 마늘종구의 50% 갱신을 목표로 무안농협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생장점 종구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조직배양실에서 마늘 생장점이 바이러스에 이병되지 않은 것에 착안, 생장점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이를 포장에서 증식하여 무병마늘 종구로 생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무안군에서는 다른 마늘보다 향산화물질이 많이 함유되고 수량성을 좋은 ‘홍산마늘’과 큰주아 생산성이 높고 수량성도 우수한 ‘단영마늘’을 무안농협과 협력하여 채종하고 있어 명실공히마늘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생장점마늘 종구생산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 무안군



함평군, 농민회 통일벼 모내기 행사 개최

- 함평군 농민회는 20일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일원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통일벼 모내기를 실시했다.
- 이날 행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함평군 농민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남북 농민 품앗이 운동 실현을 염원했다.
- 올해 통일벼는 함평지역 4개소에서 총 1.6ha 규모로 재배되며, 예상 생산량은 232포(조곡, 40kg)다.
- 이호상 전국농민회총연맹 함평군 농민회장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함평군



장성군, “베리(berry)류 드시고 젊어지세요”

-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블루베리, 복분자 등 수확철 맞아 -

- 장성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블루베리, 오디, 복분자 등의 베리(berry)류가 수확철을 맞았다.
- 베리류는 필수지방산과 섬유소가 풍부하고 뇌 · 심혈관장애 예방과 노화방지, 항암효과 등이 뛰어난 웰빙 식품이다.
- 특히 장성군의 베리류는 일교차가 크고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다.
-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능력이 우수하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 대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며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지녔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그대로 먹거나 주스나 잼으로 만들어도 좋다.
- ‘복분자’는 기력을 보호하고 피로감을 개선하며,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많아 항노화 효과가 크다. 또한 성기능을 높이고 갱년기 여성의 여성호르몬을 보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복분자는 생으로 먹거나 원액 또는 농축액을 물에 타 음료로 먹는다.
- 한편, 장성군은 베리류의 명품화를 도모하고 전국 베리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6년 베리류 명품화단지 조성사업’ 등에 17억 원을 지원해 재배면적 확대 및 6차 산업 보완에 힘쓰고 있다.
- 현재, 600여 농가가 120여 ha의 규모의 베리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수확량은 250여 톤, 농가 소득은 약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장성군

🗨️ 브라질 농림축산식품부, 광우병 발견하여 對중국 수출 일시 중단

- 브라질 농림축산식품부, 광우병 발견으로 對중국 소고기 수출 일시 중단 조치 -

- 브라질 농림축산식품부는 마토 그라소 주(Mato Grosso)에 위치한 소사육농장에서 소해면상뇌병증(BSE)이 발견되어 중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함.
- 브라질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잠정 수출중단 조치는 양국간 2015년에 발효된 상호보건 규약 지침에 의거한 것임

- 광우병, 중국 수출에 큰 영향 없어 쇠고기 수출 중단 조치, 곧 해제될 것 -

-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수출용 쇠고기 생산은 마토 그라소 주가 아닌 상파울루(Sao Paulo)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 잠정 수출 중단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함.
- 브라질 육가공 업체인 마프릭 글로벌 식품(Marfrig Global Foods)에 따르면, 중국 수출용 쇠고기 생산 공장은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9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1/4분기 기준 남미 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 물량은 전체 수출의 3%에 불과함.

- 한편, 브라질 육류수출산업협회(Abiec)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해 15억 달러 규모(약 32만 2천 톤)의 브라질산 쇠고기를 수입하였음.
- 여전히 브라질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에서 인정한 광우병 청정국가임

- 각 정부 당국, 쇠고기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되어야 -

- 전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여 육류 위생, 안전에 민감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광우병 사건은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음. 지난 6월 13일부로 중국 정부는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였으나, 육류 수출입 시 검역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6. 24. 시카고 선물거래소)

- 대두 선물가격, 농작물 기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1%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옥수수과 대두 시장에서의 손실 압력으로 인해 약세를 보였다. 미국 남부 평원의 농부들은 경질적색 겨울 밀을 수확하여, 새로운 공급을 시장에 들여오고 있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7%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올 봄 폭우로 미국 중서부 지역에 파종이 중단되면서 시세차익거래와 농작물 기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하락했다. 다음 주 보다 건조한 날씨가 농작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은 압박을 받게 되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4%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올 봄 비가 내린 날씨로 미국 농부들이 다음 주에 더 많은 에이커를 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하락했다. 무역업자들은 다음 주 미국 중서부 지역은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더 건조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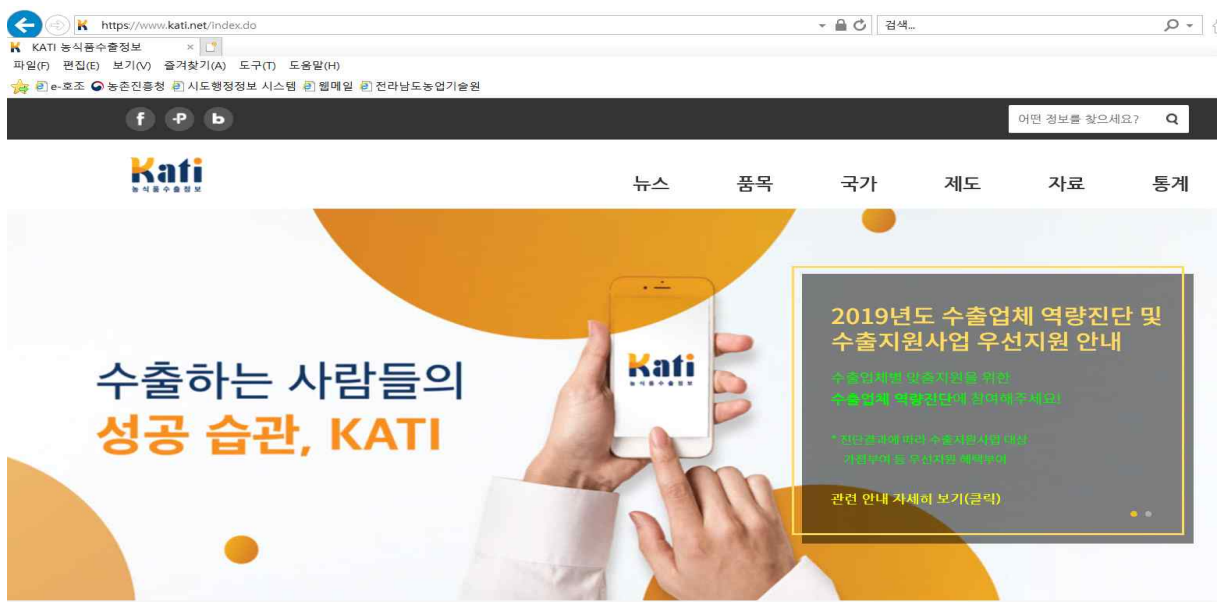
- 농사에 필요한 수출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연구정보, 관측&동향, 글로벌정보, 열린마당, 정보공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 관측&동향에서는 농업관측정보, 임업관측정보, 농정동향, 농림어업 고용동향분석,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 글로벌정보에서는 세계농업정보, 중국농업정보, 북한농업정보, 해외곡물시장동향, 농축산물수입동향(FTA)을 확인할 수 있다.
- 세계농업정보에서는 세계농업정보,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국가별 농업자료, 국제기구 동향, 국제 농업 정보, 세계 농업 브리핑으로 k 분류되어 있으며,
- 세계농업정보에서는 (월간)세계농업정보, 세계농업전망, 해외 주재관 리포트, 뉴스레터를 확인할 수 있다.
- 해외곡물시장정보에서는 세계곡물의 가격동향, 수급동향, 관련지표,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 농사에 필요한 수출입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www.kati.net)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식품수출정보에서는 뉴스, 품목, 국가, 제도, 자료, 통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 뉴스의 수출뉴스에서는 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품목은 채소, 과실/임산물, 신선기타, 가공, 수산물로 분류되어 각 품목별로 생산동향과 유통 및 소비동향, 수출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국가는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아프리카로 분류되어 각 나라별로 국가개요, 농업현황, 유통현황, 농식품소비현황, 유의/애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제도는 제도통합정보, 비관세장벽, 인증, 식품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는 발간책자, 보고서, 스토리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
- 통계는 월별, 지역별, 기간별 수출입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 상급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39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